

“파업투표 주체는 단위노조원”

산별노조 쟁의 범위 규정 첫 판결

산별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진행할 때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개별기업 조합원으로 한정해 실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절차와 관련해 개별교섭이 진행될 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중관 부장판사)는 2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속노조는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2004년 5월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해 왔으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협력업체별로 해당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에 한해 실시해야 함에도 사내 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교섭이 결렬돼 각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가 실시되는 경우 같은 산별노조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이나 지부·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해도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포커 게임머니 몰아주기

76억 챙긴 인터넷 판매상 50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일 N사 게임 서버에 불법 ‘수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매매한 혐의(업무방해)로 문모(39)씨 등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 50명을 적발해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게임머니 판매업소 운영자 139명에게 1개월 사용료로 10만원씩 받고 수혈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판매상들은 2003년 11월부터 77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팔아 약 76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상들은 게임 사이트에서 접속한 상태에서 게임머니 구매 의뢰를 받으면 구매자에게 계좌로 입금받은 뒤 구매자들 자신들이 연 게임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수혈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수혈 프로그램=인터넷 게임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해 게임머니를 판매상의 계좌에서 구매자의 계좌로 저절로 옮겨도록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판매상의 계좌로 참여한 가상의 참가자들이 매수자에게 판돈을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 화제 추적 ... 정관 복원수술 완도 21가족 중 첫 아이 탄생

“올 추석 선물은 아기 울음소리”



2일 오후 오용화(40)씨가 부인 웅원티룩(21)씨와 함께 정관복원 수술로 얻은 딸 ‘예령’이를 안고 행복해 하고 있다.

/완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추석을 앞둔 완도군이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다. 지난 27일 태어난 딸 아이 한 명이 안겨준 웃음이다. 군청에서 축전과 미역은 물론 출산장려금을 보내고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을 살피는 등 잔치집 분위기다.

아기 이름은 ‘예령’(睿伶)이. 이날 출생신고를 마친 완도군 완도읍 오용화(40·회사원)씨의 딸이다.

완도군이 이처럼 아기 한 명의 탄생에 흥분할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베트남 신부 여아 출산

2가족도 임신에 성공

군민들 “경사났다” 환호

출산 장려금·도우미 지원

은 신생아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에 430명이던 신생아가 해마다 줄더니, 2005년에 340명으로 무려 100여 명 가까이 급감했다. 완도 인구는 지난 2000년 6만7천39 명에서 지난해 연말 5만9천65명으로 5년 새 8천 명 가까이 줄었다.

결국 완도군은 긴급 처방에 나섰다.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정관이나 난관을 복원시켜주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 타임스(2005년 8월 아시아판)와 광주일보(2006년 5월 25일 7면) 등 내·외신은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급선회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 정책을 주시했고, 완도군은 언제나 첫 아이가 나오려나 노심초사해왔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완도군 의료원에서 정관복원 수술을 한 오용화씨의 부인 웅원티룩(21·베트남 출신)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5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져 가던 완도읍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오씨의 기쁨은 누구보다 더했다. 작년 추석 연휴에 베트남인 신부를 부인으로 맞은 그에게도 ‘예령’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양식장에 약품을 납품하던 그는 지난 2004년 부도와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다. 전남지역 양식장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찾아온 경제적 위기가 가정 해체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는 부인과 헤어지며 아들(11)과 딸(9)까지 말했다.

그는 “정관수술 6년 만에 복원수술을 받으면서 임신 성공률이 60% 안팎이라고 들었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예쁜 딸을 보내주시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재혼 이후 약품회사에 취업한 오씨는 “새로 태어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3월 9일 40대 여성의 첫 난관복원 수술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21명(정관 복원 10명·난관 복원 11명)의 정·난관 복원을 지원했다. 완도군은 출산이 전까지는 매월 1회 초음파 진단 등을 하도록 하고,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30만원에 산모도우미까지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완도군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정관과 난관 복원 수술에 성공한 두 쌍의 부부가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행복한 추석선물을 받았으며 함께 기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삼 먹은 백사’ 사실은 외국산 꽃뱀

○강원도 태백산 중턱에서 목사에게 잡힌 백사(白蛇·본보 9월30일자 3면)는 수입산 관상용(觀賞用)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도지회 춘천시지부’에 따르면 원주 지방환경청이 이 백사를 국립감정원 결과, 화제를 모은 이 백사는 국내종이 아니라 외국에서 관상용으로 들여온 꽃뱀(유허목이종)으로, 현행법상 보호종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정선군 미자립 교회 Y목사는 지난 달 25일 태백산 중턱에서 길이 1m 가량의 이 백사를 포획했으며, 당시 백이 산삼을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해프닝으로 끝날.

/연합뉴스

알콜중독 입원치료 40대 병원 탈출하려다 추락사

지난 1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알코올 중독 전문인 D병원 마당에서 이 병원에 입원 중인 정모(44·순천시 장천동)씨가 숨져있는 것을 간호조무사 김모(여·3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환자들이 주로 TV를 보는 자유시간에 갑자기 ‘뚝뚝’ 소리가 나서 4층 화장실에 가보니 창문을 통해 참대 시트가 밧줄처럼 밖으로 내려져 있고, 10여m 아래 땅에 정씨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인터넷에 가짜 광고 ‘돌멩이’ 발송

목포경찰, 10대 구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놓고 있던 박모(19·목포시 용해동)씨는 돈이 궁하자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

박씨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등 카페 게시판에 오디오·액세서리 등 자동차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본인 명의로 시중 9개 은행에 계좌 16개도 개

설했다.

이 글에 속아 돈을 송금한 네티즌은 한도(23)씨 등 95명. 금액은 1천 8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구매자들이 커서비나 택배로 받은 것은 자동차용품이 아니라 돌멩이나 벽돌이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박씨의 ‘잔머리’였다.

계좌추적에 나선 목포경찰은 2일 박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목포=이상희기자 ish@kwangju.co.kr